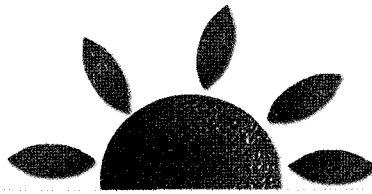


무주리조트와 진안군에 위치한 용담댐을 찾아나섰다.



덕유산 정상에 공중화장실 / 자연의 풍경에 어울리는 디자인과 화장실 입구에 설치된 안내문이 이채롭다.

무주군 덕유산 국립공원

무주리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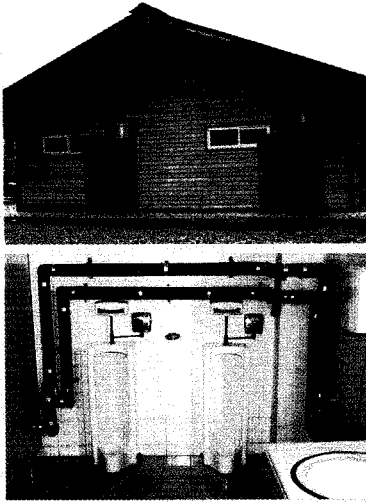
「소백산맥에서 남쪽으로 뻗어나온 덕유산국립공원(1,614m)은 전북, 경남의 2개도 4개군에 걸쳐 있으며, 1975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해발 1,330m 이상의 봉우리가 5개나 되며 8개의 큰 계곡이 있다. 그 중 구천동은 장장 90리 계곡이다. 특히 겨울 덕유산에는 백련사를 비롯한 서른 세 개의 절경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 아침이면 계곡에 흐르는 짙은 짙은 안개와 봄이면 산등에 흐드러지게 피는 철쭉, 그리고 겨울의 설경은 어디에도 비할 바 없는 선경이다. 이러한 자연적인 요건에다 호국정신이 어린 사찰과 문화재, 나제통문, 스키장 등이 덕유산을 제일 가는 관광명소로 만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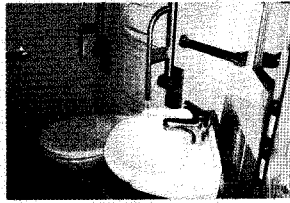
적상산성(사적146호), 안국사의 괘불(보물 1267호) 등 수많은 유적들이 곳곳에 펼쳐져 있으며, 희귀한 주목나무가 무리를 이루는 등 경치도 아름답다. 이곳에는 600여종의 동물과 250여종의 식물군이 다양하게 분포하여 일대 장관을 이루는데 특히 봄이면 철쭉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며, 구천동 골짜기의 시원한 계곡은 한여름 피서지로 더 할 나위 없이 적격이다. 또한 가을의 단풍, 겨울의 설경은 가히 자연의 오묘함을 연출한다」

덕유산 국립공원의 최정상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이 깨끗이 관리되고 있어 관광객을 보다 즐거운 여행으로 안내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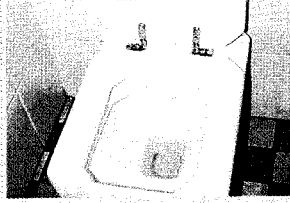
무주리조트의 화장실전경과 참결한 내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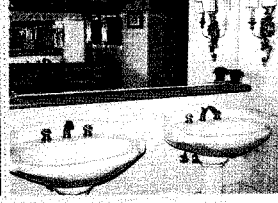
장애인 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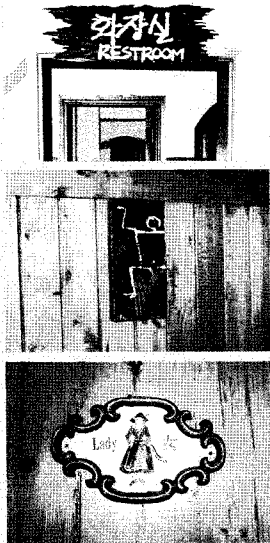
이색적인 시각변기



고품스런 실내



다. 잘 정돈된 실내는 외국인에게도 한국의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손색이 없을 듯 하다. 하루에 수천명이 이용하는 공공 화장실임에도 시설의 관리는 양호한 편이었다. 이용자에 비해 규모는 작아 보였지만 남녀 구분된 화장실에는 줄서기를 통해 질서 의식이 높아졌다는 인상을 주었다.



독특한 화장실 안내표시

자연과 건물을 고려한 화장실 분위기 연출

덕유산 정상을 내려와 넓게 펼쳐진 무주리조트 단지는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어낸다. 외국의 휴양지에 온 듯한 다양한 숙박동과 레저시설, 중앙에 위치한 호텔 등 잘 조화된 문화시설은 보논이므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단지 내 곳곳의 공중화장실은 여름 행락철을 대비하여 수시로 청결을 유지하고 있으며, 잘 정돈된 화장실 안내표시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넓은 단지에는 건물 특성을 고려하여 규모와 시설에도 중점을 두고 있었다.

남자와 여자화장실의 위치, 변기의 숫자, 서구풍의 실내·외분위기, 독특한 화장실 안내표시 등, 자연경관과 건물의 조화를 함께 살려 독특한 화장실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특히 호텔의 화장실은 화장실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의 세련미와 들어서면서 실내에 가득한 향기와 이색적인 시각변기, 깨끗하게 정돈된 세안실, 전신을 비추는 거울, 깔러리풍의 소형액자 등 화장실에 관련된 작은 소품 하나 하나가 조화롭게 구성된 실내 인테리어는 오가는 이의 여유와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